

허균 作 『洪吉同傳』의 復原에 대한 試論

박재민*

|| 차례 ||

1. 서론
2. 통설의 성립과 제가의 입장
3. '傳'으로서의 『홍길동전』
4. 현전 『홍길동전』의 모티프에 대한 사료적 확인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국문학의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인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최초의 한글소설이다.”란 명제에 대해, 사료적 접근을 통해 해명을 시도한 결과물이다. 현재 학계에는 이 진술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의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첫 번째는 위 명제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현전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한글 소설이다”란 것이고, 두 번째는 위 명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한글 소설 홍길동전과 허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란 것이며, 세 번째는 이 둘을 절충한 것으로 “허균이 홍길동전을 짓긴 했을 것으로 되, 현전 홍길동전과는 언어적·내용적 차이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란 것이 그것이다.

본고는 『홍길동전』이라는 제명 방식이 허균이 지은 『손곡산인전』, 『엄처사전』 등의 전통 傳과 흡사하고, 그가 立傳한 모든 이들이 사료로 문증되는 인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허균 작 『홍길동전』을 하나의 '傳'으로 보는 입장에 있다. 이에 문증되는 범주 내에서 실존인물 '홍길동'의 역사적 자취를 살펴 현전 소설 『홍길동전』에 나타난 주요 화소와 비교해 보는 연구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허균 작 홍길동전에 ① 서자 모티프, ② 가족 살해 모티프, ③ 사찰 탈취 모티프, ④ 관아 탈취 모티프, ⑤ 율도국 모티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런 결론은 극단적인 두 주장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현전 『홍길동전』과 같은 것이다.’와 ‘현전 『홍길동전』은 19세기의 어느 인물이 창작한 것이다’를 절충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다수 연구자들이 견지하는 ‘현전 소설 『홍길동전』이 후대에 변모한 것이긴 하지만, 허균의 『홍길동전』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試論이란 점에서 학적 의의를 지닐 것이다.

주제어 : 홍길동, 홍길동전, 업처사전, 허균, 율도국

1. 서론

『홍길동전』은 국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설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17세기 초라는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점, 당대 최고 문필가의 한 명인 허균에 의해 지어졌다는 점, 사회 개혁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 민족의식의 발로인 한글로 지어졌다는 점 등이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수식의 이면에는 몇 가지 완결되지 않은 논쟁들이 잠류하고 있다. 많은 학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적이 있는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전 소설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현전 소설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話素들은 결국 후대의 반영인바, 작품에 나타나는 개혁적인 사상들을 17세기 초의 사회에 투영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 원전 홍길동전이 지니고 있었을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먼저 ‘허균과 홍길동전의 관련성’에 대한 그간 연구사의 공방을 정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허균 소작 설과 그 반대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이 두 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균과 현전 『홍길동전』이 분명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이고, 이로써 본 논의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허균 작 『홍길동전』이 그가 지은 여타의 ‘傳’과 비슷한 범주의 작품이었으리라는 점을 가정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허균의 입전 방식과 현전 『홍길동전』 사이의 유사성을 밝히려 한다. 주지하듯, 허균은 한문으로 된 여러 편의 전을 남겼는데, 본고에서는 그의 입전 방식이 ‘사실의 진술’임을 보일 것이다. 이후, 현전 『홍길동전』의 대표적 모티프들이 실존인물 ‘홍길동’의 행적들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밝혀, 현전 『홍길동전』의 내용이 허균이 지은 원전 『홍길동전』에도 역시 담겨 있었을 개연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허균이 지은 원작의 복원에 대한 試論이 될 것이다.

2. 通說의 성립과 諸家의 입장

현전 소설 『홍길동전』이 허균의 작품이란 주장은 일본학자 高橋亨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1927년 『日本文學講座』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당시 소설로 유포되었던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으로 단정하였다.

洪吉童傳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조선소설의 하나이다. 이 소설의 작자에 대해서 이식(李植)의 택당집 산록(散錄)에 허균의 작이라고 하고 있다. 허균은 선조에서 광해군까지의 사람이고, 이식은 광해군에서 인조조의 사람이므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¹⁾

1) “洪吉童傳は色々の意味で重要な朝鮮小説の一つである。此小説の作者に就いては李植の澤堂集散錄に許筠の作となしてある。筠は宣祖から光海君までの人であ

그의 제자 金台俊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는 1933년 출간의 『朝鮮小說史』에서

傳하는 말에 許筠이가 水滸傳을 百讀하고서 洪吉童傳을 지었다고한다.
『許筠作 洪吉童傳, 以擬水滸』(澤堂雜著, 松泉筆譚)라는 文句로써 洪吉童傳의 著者が 許筠임을 알았다.²⁾(방점은 필자)

라 함으로써, 16세기의 문장가 허균이 소설 『홍길동전』의 작자임을 재천명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이 언급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³⁾ 하여

り、李植は光海君から仁祖朝の人であるから最も信を措くに足ると思はれる。”
<高橋亨, 『朝鮮文學研究 - 朝鮮の小説』, 『日本文學講座』, 제12권, 東京 新潮社, 1927, pp.34-35.>

이 내용과 해석은 이운석(『홍길동전 작자 논의의 계보』, 『열상고전연구』 36집, 열상고전연구회, 2012, p.401-404.)에서 재인용하였다. 그간 학계는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으로 비정한 최초의 연구자를 김태준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운석은 이 논의를 통하여 그 언급의 장본인이 김태준의 스승인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임을 명확히 하였다.

2) 김태준, 『朝鮮小說史』, 學藝社, pp.79-80. (가독의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는 필자가 조절하였다.)

3) 부정한 연구자로는 김진세와 이능우가 대표적이다. 김진세는 『洪吉童傳의 作者攷』(『논문집』 1,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인문·사회과학, 1969.)에서 여러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허균 작자설을 뒷받침하는 澤堂集 別集 雜著 部分의 기록은 태당 사후 27년에 후인이 수록한 것인바 그 진가에 의심이 간다.
- ② 각종 사료를 수집하여 실록 편찬에 관여한 태당이 다른 데서는 전혀 홍길동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 ③ 기자현의 비밀상소가 허균의 온갖 허물을 들춰내면서도, 큰 허물이 될 만한 『홍길동전』 저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④ 해인사의 재물을 약탈하는 홍길동과 호불적인 허균과의 불교에 대한 태도가 불일치한다.

이능우 역시 『홍길동傳과 허균의 關係』(『국어국문학』42·43, 국어국문학회, 1969.)

왔지만, 현재의 대체적 통설은, “홍길동전 : 조선 광해군 때에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⁴⁾로 인정된다.

그런데 위의 통설은 두 가지의 명제 -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이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현전 한글소설 『홍길동전』과 동일한 작품이다.’ - 의 합성인데, 이 두 명제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 근거에서 성립된 것들이다.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이다’란 통설은 高橋亨과 김태준이 인용한 『택당잡저』에 근거한다. 주지하다시피 『택당잡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

세상에 전해지기로, 『수호전』을 지은 사람은 3대에 걸쳐 농아가 되어 그 업보를 받았는데, 그 까닭은 도적들이 그 책을 떠맡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許筠과 朴燁 등이 그 책을 좋아하였다. … 허균은 또 『水滸傳』을 본떠서 『洪吉童傳』을 지었는데, 그의 무리인 徐羊甲과 沈友英 등이 그 행동을 따라하여 한 마을이 속밭으로 변하였다.(世傳 作水滸傳人三代龔啞 受其報應 爲盜賊 奪其書也 許筠朴燁等好其書 ……筠又作 洪吉童傳 以擬水滸 其徒徐羊甲 沈友英 躬蹈其行 一村蓬紛.)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15, 雜著, 散錄. (방점은 필자)>

이 있는데, 이 문집은 허균과 동시대에 살았던 澤堂 李植(1584-1647)의 것이란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신뢰도를 보장받는다. 이에 차용하는

許筠의 『洪吉童傳』 저작설이 이능우 교수의 文獻의 考證과 김진세의 周邊分析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으로 否定的인 의견이 나왔는데, 이들 推論

에서 “생각하니 金君의 洞察이 正確을 얻은 것 같다. …… 『홍길동전』은 許筠과 아무런 關係가, 적어도 當時에는, 없었던 것도 같다. ……그(李植)의 『筠又作洪吉童傳……』의 記述은 ……時勢를 단 한 錯覺的 記述 - 그 妖孽의 許筠에 말미암아진 한 投射的 雜記의 現象은 아닌 것일까?”라고 하여 김진세의 의견을 지지했다.

4)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1999.

이 비록 首肯이 가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澤堂의 記錄을 否定할 만할 確然性은 稀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確固한 論證資料가 나타나기 전에는 『洪吉童傳』 저작의 榮光은 계속 허균에게 있다고 믿는다.⁵⁾

라고 하여 허균 작 『홍길동전』을 재강조하였고, 서대석 역시 “확실한 근거 없이 허균과 『홍길동전』의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⁶⁾라고 하여 홍길동전의 허균 저작설을 지지하고 있다.

사실 이 통설에 대한 긍정은 정당한 것인데, 현전 홍길동전이 ‘신출귀몰하는 도적의 이야기’란 점은 『택당잡저』의 “수호전을 본떠(以擬水滸)” 운운과 일치하는 면모를 가지기 때문이다. 택당의 기록에 나타나는 홍길동전이 현전 한글소설 『홍길동전』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졌는지는 별도의 과제로 두더라도, 최소 택당 이식이 수백 년 뒤에 나올 소설의 제목과 내용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도적의 활동을 다룬 허균 작 홍길동전이 당대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더구나 黃胤錫(1729-1791)의 『海東異蹟 補』에서도 허균이 홍길동에 관련된 傳을 지었다는 언급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택당의 진술을 견고히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조 중엽 이전에 洪吉童이라는 자가 있었다. …… 재주와 기상을 자부하고 스스로 호방하였으나, 서자라서 나라의 법에 걸려 벼슬길에 현달할 수 없자 하루 아침에 홀연히 도망가 버렸다. …… 혹자는 “허균이 지은 傳은 죽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國朝中葉以前有洪吉童者 …… 負才氣自豪, 而拘國典 不許科宦清顯 一朝忽逃去. …… 或曰 “許筠所作傳 不足信” 何可信也.) <黃胤錫(1729-1791), 『海東異蹟

5) 차용주, 『許筠論再考』, 『亞細亞研究』48호, 高麗大 亞細亞 問題研究所, 1972.

6) 서대석, 『허균문학의 연구사적 비판』, 『許筠研究』, 새문사, 1992(초판: 1981).

(補)』 下, 『海中書生』>7)

황윤석의 이 언급은, 태당 이식의 시대뿐만 아니라, 18세기 조선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⁸⁾ 결국, 허균의 시대에 가까운 이들의 증언으로 볼 때,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통념, ‘허균의 홍길동전은 현전 한글소설 『홍길동전』과 동일한 작품이다.’는 첫 번째의 통념에 비해 대단히 엉성한 근거 위에서 성립되었다. 허균의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소설로 알려진 것은 신뢰할 만한 문헌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고, 현전하는 동일 書名の 『洪吉童傳』이 공교롭게도 모두 한글 소설⁹⁾’이란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적 정황만으로 “허균의 『홍길동전』이 한글로 된 소설이다”란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한문에 능해 한문으로 된 傳도 수편을 남긴 허균이 유독 『홍길동전』만 한글로 썼을 것이란 부자연스런 가정도 문제지만, 현전 한글 소설 『홍길동전』 중, 最先本·最善本으로 알려진 ‘경판24장본·경판30장본’¹⁰⁾이 허균의 생애와 약 200년 이상

7) 이 자료에 홍길동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김기동(『홍길동은 실존인물』, 『소설문학』, 1981.)에 의해 밝혀졌다. 원문과 해석은 『증보 해동이적』(신해진·김석태 번역, 경인문화사, 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19세기에 들어서도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란 인식은 유지되고 있다. 洪翰周(1798-1868)의 『智水拈筆』(아세아문화사 影印, 1984, p.388.)에 나타나는 “세상에서 전해지는 『홍길동전』도 또한 허균이 지은 것이다.(世傳洪吉童傳, 亦筠作也)”란 언급이 그것이다. 단, 이때의 『홍길동전』이 당시에 출현했던 한글소설을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균이 지은 ‘진’을 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9) 『홍길동전』은 30여종의 이본이 현재 학계에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서강대 30장본’은 한문본이다. 하지만, 그것은 허균의 원작이 아니라, 한글본을 바탕으로 한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머리 부분에 있는 “今朝鮮國 世宗朝 有一位宰相, 姓洪, 名字煩於諺書 故不錄也.”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결국 원전으로 추정되는 한문본은 없는 셈이다.

의 시차를 두고 처음 출현했고, 그 기간 동안 한글소설 목록을 적어둔 어떤 문헌에도 소설 『홍길동전』의 題名이 보이지 않는다¹¹⁾는 점, 현전 한글 『홍길동전』에 17세기 중후반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화소들이 일부 등장한다는 점¹²⁾ 등은 의구의 여지를 더욱 크게 한다. 즉, 허균 이후 200여 년 동안 존재의 흔적이 전혀 없다가, 시대적으로 뒤늦은 話素를 일부 함유한 채로, 19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한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두고, “이 작품

10)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현전 홍길동전 가운데 가장 오랜 最先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24장본>의 제1장 이하 제20장까지며, 원래의 홍길동전의 전체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준다는 점에 있어서 <30장본>이 最善本이라 하겠다.”라는 이창현 (『京板坊刻小説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1995. p.222.)의 판단에 근거했다.

11) 『택당잡저』 이외의 기록으로 한글 소설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띠는 『홍길동전』이란 서명이 나타나는 최초의 문헌은 洪翰周(1798-1868), 『智水拈筆』이다. 그곳에 “세 상에서 전해지는 <홍길동전>도 또한 허균이 지은 것이다.(世傳洪吉童傳, 亦筠作也, <아세아문화사, 1984, p.388, 장효현의 p.365 재인용>”란 언급이 있다. 이후, 光緒2년(1876년)의 간기가 있는 『임진록』(정문연소장)의 서문에 “고담으로 여항간에 퍼져 있는 소대성, 조웅, 홍길동, 전우치 같은 여러 전은 다만 한 사람의 사적으로 언문책을 이룬 것이다.(古談之播在閩巷 如蘇大成趙雄洪吉童田羽致諸傳者 只以一人事跡 錄成諺書)”란 기술이 있어 비로소 『홍길동전』이 한글 소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이 이전의 소설 목록을 망라한 문헌인 小田幾五郎의 『象胥記聞』(1794), 趙秀三(1762-1849)의 『秋齋集』(19C초반), 洪羲福의 『第一奇言』(1835-1848년간) 등에서 『홍길동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꼭 이상한 것이다.

12) 임형택은 후대 개작의 증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 ① 길동이 집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자기도 張吉山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겨 보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장길산은 숙종조인 17세기 말에 群盜의 대장으로 활약했던 광대출신의 인물이다.
- ② 정부에서 訓練都監 포수 수백 명을 남대문에 매복시켰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訓練都監은 작자의 생존 당시에나 설치되고, 또 총의 사용 역시도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 ③ 길동이 고국을 떠날 때, 국왕을 찾아가서 식량을 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국왕은 ‘大同米’를 내어준다. 그러나 대동법은 허균 당시 처음 경기도에나 실시해 본 정도로 본격적 실시는 17세기 중엽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진다. (『창작과비평』 42호, 1976, 겨울, p.70 발췌인용.)

이 바로 200여년 허균이 지은 모습 그대로의 그 작품이다”란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이윤석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견고히 성립하게 된다.

필자는 택당문집에 나오는 허균이 지었다는 <洪吉同傳>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洪吉同傳>이 현재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글 고소설 <홍길동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필자는 현전 <홍길동전>을 19세기 중반에 창작된 소설로 보고 있으며, …… 작자는 …… 바로 조선왕조 해체기의 탈락계층이다. …… 홍길동전은 그 내용상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가능한 소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¹³⁾ (방점은 필자)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다소 극단적인 측면이 있다. 현전 소설 『홍길동전』의 출현이 19세기 중반임은 인정되지만, 그 점으로 현전 소설 『홍길동전』의 모든 내용이 19세기 작자에 의해 구상되고 창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택당 이식은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 『수호전』을 방불케 하는 점이 있다고 했고, 황윤석은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 나타난 홍길동이 ‘서자이며, 출신의 제약으로 인해 벼슬길에 오를 수 없자 홀연히 가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현전 소설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서자·가출·도적’ 모티프와 직접적 연관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허균 작 『홍길동전』과 현전소설 『홍길동전』의 ‘題目·內容의’ 연관성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연구사적 정황에서 많은 학자들은 제3의 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입장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허균의 『홍길동전』을 인정하되,

13) 이윤석, 「<홍길동전>의 원본 확정을 위한 시론」,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pp.282-284.

현전 소설 『홍길동전』과는 일정한 거리를 지닌 작품이었을 것이다” 정도가 된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몇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홍길동전은 한글 소설의 嚆矢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 전하는 『홍길동전』이 과연 허균의 原本대로인지 어떤지는 매우 의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허균이가 한글로 지었는지 한문으로 지었는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¹⁴⁾.

만일 허균이 <홍길동전>이라 명명할 만한 글을 지었다면, 傳 또는 전 형식을 빈 문헌설화라 할지라도, 거시적인 모티프에 있어서는 현전 홍길동전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택당집>의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여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전 <홍길동전> 이본들과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

현전 <홍길동전>이 허균의 저작 그대로가 아니고 후대에 부연·윤색된 것이라는 사실에는 필자도 공감한다.¹⁶⁾

본고의 논의 역시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자료를 통해 살펴봐왔듯이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의 원형은 현전하는 한글본 『홍길동전』과 적지 않은 ‘언어적·내용적’ 차이가 있을 것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균작 『홍길동전』과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언어적·내용적’ 거리는 어떠할까? 즉, 허균 작 『홍길동전』의 원형은 어떠할까? 이하는 그 점에

14) 이명선 『조선문학사』, 朝鮮文學社, 1948, pp.141-145.

15)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4, p.284.

16) 장효현, 『“홍길동전”의 生成과 流傳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2001, p.349.

대한 고찰이다.

3. ‘傳’으로서의 『홍길동전』

택당과 황윤석의 언급으로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것을 200여년 후에 출현한 한글 소설 『홍길동전』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 또한 마땅치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그가 지은 ‘홍길동전’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과감한 가설을 하나 설정하려 한다. 바로, 『홍길동전』을 ‘허구적 소설’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그가 지은 여타의 ‘實傳’과 같은 범주의 작품으로 비정해 보는 것이다.¹⁷⁾ 허균은 당대의 문장가

17)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조희웅, 정규복 등의 논문에서 이와 같은 견해가 보인다. “허균이 지었다는 『홍길동전』은 현전 『홍길동전』이 아니라 실존 인물 洪吉同의 傳記이며…… 결론적으로 말해 허균은 실존했던 인물 洪吉同의 전기들 썼는데, 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만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를 바탕으로 현전 소설 『홍길동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조희웅, 『국문본 고전소설 형성연대 고구』, 『국민대학교논문집』 12, 1977, pp.28-29.>

“곧 許筠의 원작은 현존한 翰南本의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허균의 여타 漢文小說인, 즉 實傳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嚴處士傳·南宮先生傳 등과 같이 義賊 ‘洪吉同’의 실전이 바탕이 되어 傳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漢文小說일 것이라는 것이다.” <정규복, 『洪吉童傳 텍스트의 문제』, 『정신문화연구』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161.>

그러나 이러한 착안이 양자간의 비교를 통하여 심화·실천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제안으로만 그친 감이 있는데, 그 한계를 이복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허균 원작의 『홍길동전』이 실존 인물 洪吉同의 전기였으리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작품에 나타난 홍길동의 행적과 실존 인물 홍길동의 행적이 일치함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를 보면, 양자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복규, 『‘홍길동전’ 작가 논의의 연구사적 검토』, 『서경

로, 그의 문집에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5편의 傳을 남겨두고 있다. 『蔣生傳』, 『蓀谷山人傳』, 『南宮先生傳』, 『嚴處士傳』, 『張山人傳』¹⁸⁾이 그것이다. 『洪吉同傳』을 하나의 傳으로 가정하여 傳들의 공통범주 속에서 『홍길동전』의 원형태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는 까닭은 이 6편은 모두 동일인물의 저작이라는 점, 모두 『○○傳』의 형식으로 제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역사적으로 실증이 되는 人物이라는 점 등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홍길동전』만을 따로 떼어 ‘허구적 소설’로 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아무래도 동일한 범주의 작품군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개연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려는 것이다.

한편, 『洪吉同傳』을 여타의 傳들과 같은 범주의 작품으로 가정할 수 있다면, 현전하는 여타의 傳들이 지닌 공통 구조나 속성을 밝혀 未知의 『홍길동전』에 연역적으로 적용할 길이 열리게 된다. 즉, “허균의 傳은 모두 實傳的 특색을 지니고 있다. → 『홍길동전』도 허균이 지은 傳이다. → 그러므로 『홍길동전』도 實傳的 특색을 지니고 있다.”의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의 傳들이 과연 實傳的인가?”가 된다. 즉, 5편의 傳 나타난 인물들이 과연 문헌적으로 고증될 수

대학교 논문집』20, 1992, p.13.>

본고는 이복규가 요구한 ‘소설과 실전이 지닌 거리를 좁히라’에 부응하기 위한 실천적 작업의 성격을 띤다.

18) 이상 5편의 작품들은 모두 『惺所覆瓿稿』(卷8, 文部5, 傳)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윤주필(『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7, 한국고소설학회, 1999.)은 홍만중(1643-1725)의 『海東異蹟』과 황윤석(1729-1791)의 『海東異蹟 補』에 수록된 『柳亨進』도 그의 傳 작품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그의 논의 범주에 동조하지만, 본고는 논의의 편의상, 이 작품의 분석은 생략한다. 한편, 이 작품 역시 述而不作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은 다른 작품과 같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한다.)

있으나, 그리고 傳 속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는나가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허균 작 원형 『홍길동전』을 實傳으로 재구하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작품에 나타난 立傳 대상들의 실재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蓀谷山人傳 : 허균의 스승 蓀谷 李達(1539~1612)에 관한 傳으로, 그의 불우한 일생을 담담히 적고 있을 뿐, 놀랍거나 허황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또한,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孤竹 崔慶昌(1539-1583), 玉峰 白光勳(1537-1582), 思菴 朴淳(1523-1589), 霽峰 高敬命(1533-1592), 荷谷 許篈(허균의 형, 1551-1588) 등과의 교유사실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동시대인들이었다.

② 南宮先生傳 : 南宮斗가 실존인물임은 동시대의 저작들 - 柳夢寅(1559-1623)의 『於野談』, 李晬光(1563-1628)의 『芝峯類說』 - 등에서도 야담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기에 알 수 있다. 또한 작품내의 후기부분에서 “내가 보았던 남궁선생”이란 구절이 나오고 특히, 實記로 적은 『惺所覆瓿藁』(卷4, 文部1, 序)의 『攝生月纂 序』에서도 “일찌기 남궁두를 호남에서 보았는데 나이 90인데도 용모가 노쇠하지 않았다.(曾見南宮斗於湖南, 九十而貌不衰.)”로 되어 있어 그가 실존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③ 蔣生傳 : 蔣生은 미천한 사람이라 외적 기록은 드문 편이나, 작품 내적으로 본다면 허균의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서울에서 유명했던 광대이자 거지였던 듯하다. 洪萬宗(1643-1725)의 『海東異蹟』과 金鑣(1766-1822)의 『潭庭叢書』에도 보이므로, 당시로서는 꽤 신기하게 여겨지며 膾炙되었던 인물인 듯하다.

④ 張山人傳 : 주인공 張漢雄 역시 미천한 사람이라 외적 기록이 드물다. 그러나 역시 홍만종의 『해동이적』에 실존인물로 소개되어 있다.

⑤ 嚴處士傳 : 『엄처사전』에 나타나는 嚴忠貞은 “허균의 傳이 허구적 부분이 많을 것이다”란 선입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인물이다. 이문규¹⁹⁾가 ‘강릉사람 朴遂良’을 입전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다음의 기록으로 볼 때, 강릉에 실재하였던 ‘엄충정’ 그 자신임을 알 수 있다.

강릉에 사는 嚴忠貞에게는 마땅한 관직을 내리라. ……충정은 아버지의 상사가 있었을 때, 예법에 넘도록 애통해하며 정성을 다해 여묘하였고, 홀어미를 봉양함에도 역시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온 고을이 칭찬하였다. 또 학행과 쓸만한 재질이 있었다.(江陵居嚴忠貞, 相當職除授. ……忠貞在父喪, 哀毀踰禮, 盡誠居廬, 養偏母, 亦盡其誠, 一鄉稱之, 且有學行可用之才) <『명종실록』 권17, 9년(1554) 11월 丙寅>²⁰⁾

⑥ 洪吉同傳 : 홍길동은 주지하다시피 실존 인물이다. 왕조실록에 도적의 괴수로 수차례 나타나는데, 그 중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강도 洪길동을 잡았다는 말을 들으니,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로움을 없애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참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聞捕得強盜洪吉同, 不勝欣抃. 爲民除害, 莫大於此, 請於此時窮捕其黨.) <『연산군일기』 권39, 6년 10월 癸卯>

옛날 洪길동[도적의 괴수]의 부류를 금부에서 추문한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昔者洪吉同[賊魁]之類, 以禁府推之, 已有前例.<『중종실록』 권70, 25년 12월 甲申>

19) “<嚴處士傳>도 江陵人 朴遂良과 같은 인물을 虛構化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문규, 『허균산문문학연구』, 삼지원, 1986, p.79.>

20) 이 기록 이외, 『研經齋全集』 권53의 『逸民傳』에서도 “嚴忠貞 江陵人 家甚貧窮 薪水以自給 養其母極孝……”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즉, 그는 실존인물이다.

그렇다면, 허균은 위의 실존 인물들을 입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일까. 아무리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가 인물형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述而作’의 형태를 지배적으로 나타낸다면, 이 傳들은 實傳이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까워지겠기에, 역시 여기서 우리는 그의 述而不作의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태도를 살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물에 대한 의도적 허위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각 전들의 첫 시작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엄처사는 이름이 충정오로, 강릉사람이었다.(嚴處士, 名忠貞, 江陵人也.)
<엄처사전>

손곡산인 이달의 자는 익지이다. 쌍매당 이침의 후예이나, 그 어머니가 천하여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 원주의 손곡에 머물면서 이로써 호를 삼았다.(蓀谷山人李達字益之. 雙梅堂李詹之後, 其母賤, 不能用於世. 居于原州蓀谷, 以自號也.) <손곡산인전>

장산인은 이름이 한웅이나,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張山人, 名漢雄, 不知何許人也.) <장산인전>

선생의 이름은 두로, 대대로 임피에서 살았다. 집안도 본래 넉넉했고, 재산도 그 고을에서 가장 많았다.(先生名斗, 世居臨陂. 家故饒, 財雄於鄉.) <남궁선생전>

장생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기축년(1589년) 무렵에 서울을 왕래하며 결식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나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蔣生不知何許人. 己丑年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 問其名則, “吾亦不知.”) <장생전>

위는 각 傳들의 첫 머리 문장들인데, 이 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물의 이름과 집안 내력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이는 傳의 가장 전통적인 공식인데, 허균이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

이다. 이 점은 허균이 전통적 傳의 개념에서 그리 자유롭지 않은 인물임을 말해주며, 동시에 그가 지은 傳은 그 전통적 기술방식 - 述而不作-에서 그리 자유롭지 않을 것임에 대한 중요한 示唆가 된다.

한편, 위의 예문은 내력을 밝힌 인물과 내력을 밝히지 못한 두 인물 부류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때, 내력을 밝힌 인물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함을 보인다. 또한 그는 내력을 모르는 인물에 대하여는 간단히 “어떤 내력을 지닌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만 적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傳에 임하는 태도가 한번 더 확인된다. 만약 허균이 “立傳할 때 述而作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의 통명한 기술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떻게든 그럴 듯하게 사실을 꾸미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그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그대로를 적어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외 여러 항에서 허균 ‘傳’의 述而不作적 특성을 찾아 볼 수 있겠으나²¹⁾, 본고의 논지를 벗어나기에 더 이상 천작하지 않는다. 다만, 그간 허

21) 가령, 허균의 또 다른 傳으로 알려진 『柳亨進傳』과 같은 경우도, 서사의 포인트마다 나타나는 시대 표지를 확인해 보면 모두 역사적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음을 본다. 즉, 작품의 첫 머리에 나타나는 “병오년 내가 좌막으로서 천자의 사신을 맞이 하였다(歲丙午 余佐幕迎詔)”를 확인해 보면, 그가 종사관으로 참가했던 사실 - [주 지번이…조서를 가지고 조선으로 나왔는데 …… 허균……을 불러 종사관으로 삼았다. (朱之蕃……齋詔出來……許筠……爲從事) <『선조수정실록』 권40, 39년(丙午, 1606년) 1月 庚午>] - 이 확인되고, 내용의 중간 즈음에 “류는 이름이 형진이고 오찬성 겸의 사위다(柳名亨進, 乃吳贊成謙之贅也.)”란 말을 문헌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역시 다른 문헌에서 정확히 부합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처럼 유행진이란 인물이 오찬성의 사위임이 『울곡선생전서』 등에서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吳公은 1남 5녀를 두었는데, 남이는 언후 … 사위는 첫째가 신참의…다음이 정사윤… 권대동 … 윤영… 유행진이었다.(生一男五女 男彥厚……婿長卽愼參議, 次鄭師尹…權大勳…尹翼…柳亨進.)” <『栗谷先生全書』 권18, 墓誌銘, 左贊成吳公墓誌銘>

구화의 산물로 알려져 있던 『엄처사전』의 전문과, 문헌기록에 나타난 엄처사의 기록을 비교하여 ‘허균의 傳’과 ‘입전된 인물의 실제 行적’은 그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을 다시 확인하여 둔다.

㉠ 실록에 나타난 ‘엄충정’
<p>㉠강릉에 사는 嚴忠貞에게는 마땅한 관직을 내리라. ……㉡충정은 아버지의 상사가 있었을 때, 예법에 넘도록 애통해하며 정성을 다해 여묘하였고, ㉢홀어미를 봉양함에도 역시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 온 고을이 칭찬하였다. 또 ㉤ 학행과 쓸 만한 재질이 있었다.(江陵居嚴忠貞, 相當職除授. ……忠貞在父喪, 哀毀踰禮, 盡誠居廬, 養偏母, 亦盡其誠, 一鄉稱之, 且有學行可用之才) <명종실록 권17, 9년 11월 丙寅></p>
㉡ 허균의 『엄처사전』
<p>㉠ 엄 처사(嚴處士)는 이름이 충정(忠貞), 강릉(江陵) 사람이었다. ㉡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무척 가난하여 몸소 빨감과 먹을 것을 마련하였다. ㉢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효성을 다하여 새벽이나 저녁에는 곁에서 떠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조금만 편찮으면 마음 편하게 잡자리에 들지도 않으며, 손수 음식을 만들어 드시게 하였다. 어머니가 비둘기 고기를 즐겨하자, 그물을 짜고 간대에 갖풀을 붙여서라도 기필코 잡아다가 대접하였다. 그 어머니가 글을 배워 과거를 보도록 타이르자, 더욱 열심히 글을 배우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시부(詩賦)를 아주 아견(雅健)하게 지어 내서 여러번 향시(鄉試)에 뽑혔고,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하였다. ㉣ 책이라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유독 《주역(周易)》과 《중용(中庸)》에 깊이 파고들어 이치에 높고 멀리 나아가, 저술한 글들이 하도 낙서(河圖洛書)와 서로 부합되는 경지였다. ㉤어머니 병환이 위독하여 자기를 데려가고 어머니 살려 주기를 하늘에 기도했지만, 희생하지 못하자 여러날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날 정도였다. 3년간 여묘(廬墓) 살이에도 죽만 마셨다. 복제(服制)를 마치자, 벗들이 과거에 응하기를 권했다.</p>

처사(處士)는 울면서, “나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과거보려 하였다. 이제 왜 과거를 보아 내 목مان 영화롭게 하고 어머니는 누릴 수 없게 하랴. 나는 차마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목메인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남들이 감히 다시는 말하지 못하였다.

만년(晩年)에 우계현(羽溪縣 강릉의 속현)으로 이사와 살며 산수(山水)가 유절(幽絶)한 곳을 택하여 띠집(菴舍)을 짓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려 하였다. 궁핍하여 제 몸을 의탁하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편안하게 살았다.

㉔ 사람됨이 화평하고 순수하며, 평탄하고 특 트여 남들과 거슬리지 않았다. 평생시에는 공손하고 지성스러웠으나 고을에서의 잘잘못을 평하거나,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어야 할 것들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하여 범할 수가 없었고, 일체를 의(義)로만 재단하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도 반드시 충효(忠孝)를 첫째로 하고 화려한 명리(名利) 따위야 완전히 벗어난 듯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다.

㉕ 사서(史書)를 읽으며 성패(成敗)·치란(治亂)·군자(君子)·소인(小人)을 구별함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강개하여 명확히 판단하고 막힘이 없어 들을 만하였다. 무목(武穆)이나 문산(文山)이 죽어간 대목에 있어서는 별안간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문장은 간결하고 절실하여 운치가 있었고, 시도 역시 장려(壯麗)하게 지어 냈다. 그래서 전해지고 외어지던 것들이 1백여 편이었는데, 모두 시작(詩作)의 규범에 합치되었으나 처사 자신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조정(朝廷)에서도 듣고, 가삼히 여겨 두 번이나 재랑(齋郎 참봉(參奉))을 제수(除授)했으나 끝내 부임하지 않고 말았다.

향년(享年) 78세였다. 생을 마치려던 무렵에 오래 전부터 출입하던 몇 사람과 학자 10여 명을 초대하였다. 주안상을 차려 대접하고는 이어서 자기 죽은 뒤의 일을 말했으니, 반드시 선산(先山)에다 장사지내 주고 그의 어린 손자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아끼던 도서(圖書)들을 문인(門人)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단정히 앉아 조용히 서거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평소에 알지 못하던 선비들까지도 모두 와서 조상(弔喪)해 주었다. 유문(遺文)은 흩어지고 잃어버려 모아놓지를 못했다.

외사씨(外史氏)는 논한다.

처사(處士)는 가정에서 효도를 다했고 고을에서 절도 있는 행실을 하였으니, 분명히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궁하게 살다가 세상을 마쳐 그의 훌륭한 재능이 조금도 쓰이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선비들이 묻혀 사는 암혈(巖穴)에는 이분처럼 이름이 인몰(湮沒)하여 전해지지 않는 선비들로는 처사 한 사람만이 아니어서, 더욱 슬퍼진다.²²⁾

인용된 ㉠의 ㉡ ~ ㉢은 ㉣의 ㉤ ~ ㉥을 그대로 준용하며 실제 사실들로 뒷받침하는 것인데, 이러한 立傳 방식은 허균의 傳에 대한 개념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 현전 소설 「홍길동전」의 모티프에 대한 사료적 확인

이상 필자는 허균이 지은 傳들은 모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행적 또한 사실에 바탕하여 기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연산군대의 도적 ‘홍길동’을 입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길동전」 또한 같은 ‘述而不作의 사실적 속성’을 지녔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현전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몇 모티프가 그의 傳에 실재했을 가능성을 검증해 보겠다. 각 요소를 작품의 전개과정에 따라 ① 홍길동이 명문 흥판서의 서자이다, ② 어려서 가족 관련 인물을 죽이고 가출한다, ③ 해인사를 탈취한다, ④ 전국 각도의 관아를 탈취한다, ⑤ 꿈을 이루고 울도국으

22)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을 따랐다. 원문은 紙面 관계로 생략한다. (원문 확인은 <한국고전종합 DB>이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 DB를 참조할 것.)

로 향한다 로 나누어 고찰한다.

1) 근본 천생 서자 모티프

도선국 세종도 시절의 혼 지상이 이시니 성은 홍이오 명은 피라 디디 명문
거족으로 ……출섬을 잇글고 협실의 드러가 정이 친압하니 ……근본천생이라
길동이 미양 호부호형하면 문득 꾸지저 못하게 하니……비복 등이 천디호물
각골 통한하여 … <경관 30장본, 이하 인용 同>

현전하는 『홍길동전』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그가 ‘근본 천생의 庶子’란 점이 있다. 그가 ‘서자’ 출신임은 이 작품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는데, 과연 사실에 기초했을 것으로 믿어
지는 허균작 『洪吉同傳』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왕조실록에는 ‘길동’이란 명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죄수 백정, 춘재, 영부, 길동, 춘을, 을중이 강화도의 민가를 위협하여 강도
질한 죄는, 즉시 참형에 처하는 죄목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囚
白丁春才, 永夫, 吉同, 春乙, 乙中劫江華民家強盜罪, 律該斬不待時.” 從之.)
<『성종실록』 권6, 1년 7월 戊戌>

형조에 명을 내리기를, “… 포천에 정속된 우질지, 일신역에 정역된 김두을
언, 광정역에 정속된 복산, 신창에 정속된 내은이, 직산에 정속된 증금·분이,
충주에 정속된 한실·귀생, 연산역에 정속된 정원, 진잠에 정속된 조독동·백
중, 면천에 정속된 이금음물, …… 강음에 정속된 울거지·계동·소진주, ……
동선참에 정속된 잉질달, 동선참에 정역된 이실, 연안에 정속된 김도치… 북
청에 정속된 농금·중생·길동·중덕·철동·김내은삼·해충…등을 놓아 주
도록 하라.” (傳旨刑曹…“放…抱川定屬牛叱知, 日新驛定役金豆乙彦, 廣程
驛定屬卜山, 新昌定屬內隱伊, 稷山定屬仲今·粉伊, 忠州定屬韓實·貴生,

連山驛定屬丁元, 鎭岑定屬趙禿同·白從, 沔川定屬李今音勿 … 江陰定屬
 芑巨之·戒同·小眞珠 … 洞仙站定屬芑叱達·同役李實, 延安定屬金都致
 … 北靑定屬弄今·仲生·吉同·仲德·哲同·金內隱三·海忠”) <『성종실
 록』 권 73, 7년 11월 甲子>

의금부에 알려져, 온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킨 정귀선·자을미·중산·
 유공·길동·김막동·가을근·장명·김두대·조석을이·오을미·별개·동
 질금·사길·조덕생·고음생·자고미 … 등을 풀어 주게 하였다.(傳旨義禁
 府, 放全家徙邊鄭貴善·者乙未·中山·有孔·吉同·金莫同·加乙斤·長
 命·金豆大·趙石乙伊·吾乙未·伐介·同叱金·四吉·趙德生·古音
 生·者古未 …) <『성종실록』 권124, 11년 12월 壬子>

좀 장황한 인용이 되어 버렸지만, 우리는 위의 기록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 나타난 세 번의 ‘길동’은 모두 동일인물이 아
 닌데, 이 모든 경우가 천민의 신분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주변에 열거되어 있는 官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미를 가진 한자의 조합이 아니라 단순히 借字로 사용된 것임
 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吉童’ 혹은 ‘吉同’이란 명칭은 ‘莫同·貴同·今音
 同’ 등의 이름과 다를 바 없는 명칭임을 알게 된다. 결국 이름으로만 보자
 면, 홍길동은 애초부터 고귀한 양반의 자제는 될 수 없다. 즉, 출세의 길이
 막혀 있는 계층의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설 『홍길동전』의
 대전제가 되는 ‘賤生 서자’ 모티프가 허균의 ‘홍길동전’에도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추정보다 더 직접적인 근거도 있다. 바로 황윤석이 지은
 『海東異蹟 補』에 나타난 다음 기록이다.

예전에 들으니, 조선조 중엽 이전에 洪吉童이란 자가 있었다 한다. 재상 逸童[홍일동은 장성 아차곡에 살았다.]의 서얼 동생으로, 제주와 기상을 자부하며 스스로 호탕했으나, (서자라서) 나라의 법에 걸려 벼슬길에 나갈 수 없게 되자, 하루 아침에 홀연히 도망가 버렸다. …… 필시 바다 밖으로 도망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일 것이다. 후자는 말하길 “허균이 지은 傳은 믿기에 부족하다”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舊聞 國朝中葉以前 有洪吉童者 相臣逸童 孽弟也[洪逸童 居長城亞次谷] 負才氣自豪, 而拘國典 不許科宦清顯 一朝忽逃去. …… 必其逃海外自王. 或曰 “許筠所作傳 不足信” 何可信也.) <황윤석, 『海東異蹟 補』, 『海東書生』>

위 내용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나타나기 전에 생성되었으므로, 허균의 『홍길동전』에 바탕한 언급이 되는데, 이 자료에서 홍길동은 ‘벼슬길에 막힌(不許科宦清顯) 서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서자’ 모티프는 허균 작 『홍길동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의 두 자료에서 약간의 개념적 충돌을 느낀다. 즉, ‘홍길동’이란 이름은 분명 ‘賤民’의 호명법인데, ‘천민’과 ‘서얼’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런 이름이 ‘서얼’에게도 쓰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인용은 좋은 해명 자료가 되어 준다. (물론 서얼들의 이름은 양반식으로 지은 경우도 많지만), 다음과 같이 천민과 다른 없는 명명을 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에서 방점한 이름은 모두 서얼들의 천민식[非양반식·非한자식] 이름이다.

민서[閔叙]의…… 서얼 아우 오을미[吾乙未] ……오치권[吳致權]의 서얼 삼촌 가팔리[加八里] ……조경치[曹敬治]의 서얼 삼촌 중이[衆伊]……자을미[者乙未]·간매[干磨]와 서얼 삼촌질 가사[加沙], …… 이복 아우 개동[介

同]……신정보……삼촌질 집[緝]·수[繡]·량[樑]·계[繼]·서[緒], 형 익보 [益保], 서얼 삼촌질 복지[卜只]·동옥[同玉], 서얼 형 존자[存者], 서얼 삼촌 질 건지[巾之]·달망[達亡]·내은동[內隱同] [閔叙 …… 孽弟吾乙未 …… 吳致權孽三寸叔 加八里……曹敬治 孽三寸叔 衆伊……者乙未…干磨 孽三寸姪 加沙·異母弟介同……辛井保 三寸姪緝·繡·樑·繼·緒, 兄益保, 孽三寸姪卜只·同玉, 孽兄存者, 孽三寸姪 巾之·達亡·內隱同) <『예종실록』 권3, 1년(1469년), 2월 戊子>

이것으로 허균 작 『홍길동전』에 서얼 모티프가 있었을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왔다고 본다. 이름을 붙인 방식으로 볼 때나, 황윤석의 傳言으로 볼 때나 “홍길동이 서얼이다”라는 모티프는 원작에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족 살해 모티프

이제 길동이 낭인을 죽이고 건상을 살펴보니, 은허슈는 셔호로 기우러지고, 월식은 희미하여 슈회를 돕는지라, 분괴를 참지 못하여 또 초난을 죽이 고쳐 훑다가 상공이 스랑훑시물 썩닫고 칼을 더지며 망명도싱호물 싱각하고 <경판 30장본>

이 부분은 어린 홍길동이 가족과 관련된 인물을 죽이고 가출하는 장면이다. 이로써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과연 이 부분은 허균작 『홍길동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가? 다음의 기록은 실존 홍길동이 자신의 가족을 죽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선왕조에서는 복상에 적격자를 얻어 풍속이 순미하므로 강상의 변이 없고 다만 홍길동·이현수 두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항간에서 욕을 할

때는 으레 이 두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았는데…… (先王朝, 卜相得人, 風俗淳美, 無有綱常之變, 只洪吉同·李連壽兩人而已, 閭里話謾, 必以此兩人辱之……) <『선조실록』 권22, 21년 1월 己丑>

여기서 綱常의 變이란,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거나, 처첩이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모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등 국가의 강상에 관계된 자(子孫謀殺祖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故殺人, 關係國家綱常.) <『선조실록』 권152, 35년 7월 癸酉>

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륜의 기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공교로운 일이지만, 위에서 홍길동과 나란히 거론된 이연수 역시 이와 같은 죄목으로 당시에 회자되던 인물이었다.

승지 원계체가 이연수가 승복한 내용을 들어와서 아뢰니, (연수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구박이 날로 심하여져 욕친이지만 원수처럼 여기므로 시해하였습니다.”) 전교하였다. “도성 안에 이렇게 극악한 인간이 있으니 이는 교화가 밝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법률에 의거하여 처형하라. 그리고 그 머리를 사방에 돌려 보이라.”(承旨元繼蔡以李連壽承服事入啓 “連壽供 父母薄我日甚 雖曰天親 有同仇讎 故爲此弑逆云” 傳曰 “王城之內 有此大惡之人 此由王化不明而然也 予甚慙焉 其依律典刑 其首傳示四方” <『중종실록』 권71, 26년 6월 庚辰>

이로 우리는 허균작 『홍길동전』에 길동이 부모 혹은 그와 관련된 인물을 죽였던 모티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현전 홍길동전에는 ‘또 초난을 죽이고져 헛다가 상공이 사랑히시물 씨단고 칼을

더지며' 정도로 표현된 것은 주인공의 긍정적 인물 형상을 위해 후대의 누군가가 변용 기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사찰 탈취 모티프

모든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최소한 '해인사 노략질'은 후대의 개작으로, 원전 『홍길동전』과는 거리가 있겠다란 것이다. 왜냐하면, 허균은 다음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好佛論者이기 때문이다.

문장을 좋아하고 학문을 일삼는 자라면 누가 색다른 책을 섭렵하여 건문을 넓히지 않겠습니까만, 허균이 불경을 외고 읽는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면 반드시 식경을 외고, 항상 작은 부처를 모셔두고는 새벽이면 반드시 설위하고 치의를 입고 염주를 걸고서 절하고 염불하면서 불제자라 자칭하니, 승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喜文章事學問者, 誰不涉獵異書, 以廣見聞. 筠之誦讀, 非此之謂也. 食則必誦食經, 常儲少佛, 晨必設位, 穿緇衣, 掛念珠, 納拜念佛, 自稱奉佛弟子, 非僧而何.) <『선조실록』 권211, 40년 5월 丁卯>

삼척 부사 허균은 유가의 자제로서 도리어 이교에 빠져 승복을 입고 예불을 외고 있으니 몸은 조정에 의탁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의 중입니다. (三陟府使許筠 以儒家子弟 反入異教 服緇禮佛 掛珠誦經 則托跡朝紳 而眞一僧徒也) <『선조실록』 권211, 40년 5월 戊辰>

그리하여 연구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구들이 단정적으로 제시되었다.

地方守令의 不義之財만을 약탈한다던 洪吉童이 海印寺의 財物을 약탈하는 것과 許筠의 佛教 信奉과를 생각할 때 선뜻 수긍할 수 없다.²³⁾

佛敎에篤信한 허균이 해인사를 공격하는 에피소드를 그의 작품 속에 삽입시켰을까 하는 문제와, 허균이 죽고 난 뒤의 사안들 즉 京板本の 장길산 에피소드, 完板本의 大同米 등의 事案들은 허균이 죽고난 뒤의 일들인 만큼 허균의 작품속에는 등장할 수는 없는 일²⁴⁾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홍길동전』을 작가 의식이 투영된 소설로 여기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뿐이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소설로서가 아닌, 述而不作의 傳으로만 썼다면, 실제 홍길동이 행했던 사실인 경우엔 빠뜨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전 홍길동전의 해인사 탈취사건은 경판·완판·필사본 계열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청포혹덕의 나귀를 타고 좡즈 슈인을 다리고 나가며 왈 니 그 절의 가동정을 보고 오리라 하고 가니 완연흔 직상가 츠체라 <경판 30장본>

길동이 일필 蹇驢의 從者 數十名을 다리고 宰相家 書房님 行次갓치하고 제인을 불터 일오더 내 절의가 단여올거시니 그더등은 수일지다리라하고 飄然니 나가니 完然흔 宰相家 子弟너라 <김동옥89장본>

서동복식으로 나귀를 타고 좡즈슈인을 다리고 가니 완연흔 직상의 츠체리라 <완판본>

실록에 전하는 홍길동의 강도수법 역시 이를 방불케 하는 일면이 있다.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흥대 차림으로 침지라 칭하며 대낮에 무리를 지어

23) 김진세, 『洪吉童傳의 作者攷』, 『서울대 교양과정부 論文集』 1, 1969, p.21.

24) 김광순, 『“홍길동전”의 作者是非에 대하여』, 『문화전통논집』 장간호,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3, p.11.

무기를 가지고 관부에 드나들면서 거리낌 없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強盜 洪吉同, 頂玉帶紅, 稱僉知, 白晝成群, 載持甲兵, 出入官府, 恣行無忌) <『연산군일기』 권39, 6년 12월 己酉>

금부에 갇혀 있는 도둑 순석 등이 …… 이 도둑들은 옥관자를 갖추고 있다 하니 홍길동이 당상의 의창을 갖추고 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禁府賊人順石等…… 且此賊人等 備玉貫子云 與洪吉同備堂上儀章無異) <『중종실록』 권70, 26년 1월 丙戌>

홍길동의 유들은 신이 찰리사로 가서 추국했는데 홍길동이란 자가 당상의 의창을 했기 때문에 수령도 그를 존대하여 그의 세력이 치성하게 되었었습니다. (洪吉同之類 臣以察理使往鞠之 洪吉同者 爲堂上儀章 守令亦尊待之 其勢鴟張) <『중종실록』 권70, 25년 12월 甲申>

우리는 그간, 허균의 호불적 경향 때문에 이 부분만은 홍길동전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온 경향이 짙다. 하지만, 작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믿지 않든, 述而不作이라는 ‘傳’의 특성상, 이것만으로 후대에 덧붙여진 부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의 불안이 있다. 오히려 강도의 수법이 실록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 당시 배불적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 등에서 허균작 『홍길동전』에는 실화로서의 사찰탈취 모티프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작가의 의식은 의식인 것이고 傳의 사건은 傳의 사건인 것이다. 허균의 또다른 작, 『남궁선생전』에도 그는 믿지 않지만, 사실은 사실이므로 기록해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있다.

선생이 스승으로 여겼던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관상 보는 사람에게 알아냈다는 것도 결코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은 못되며, 말했던 것들도 역시 모두 그렇지만은 않으리라.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 같은 실체 없는 소리리라. (先

生所師者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悅亦未必盡然. 要之影響之間也.) <남궁선생전>

4) 팔도에 걸친 의적 모티프

현전 『홍길동전』에서 독자를 가장 매료시키는 부분은 홍길동이 팔도를 누비며 의적 행위를 할 때일 것이다.

이후로 길동이 조호를 활빈당이라하여 도선 팔도로 다니며 각 읍 수령이 불의로 지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혹 지빈무의한 지 있으면 구제하며, 빅성을 침범치 아니하고, 나라의 속헌 지물은 추호도 범치 아니하니 <경판30장본>

과연 원본 『홍길동전』에는 이러한 모티프가 존재했을까. 먼저, 홍길동의 활동 범위가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은 다음의 기록으로 암시받을 수 있다.

‘이 도둑은 三道로 나누어 노략질할 설계를 했다.’고 하였고, 우두머리 순석의 초사에도 이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심상한 도둑이 아닌 듯하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형조는 다른 공사가 매우 많이 있어서 오로지 이 도둑만 다스릴 수가 없다. 옛날 홍길동[도둑의 괴수]의 부류를 금부에서 추문한 전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전례를 참작하여 한 것이다. …… 감사가 ‘이들은 보통의 도둑이 아니다.’고 하였다. (則此賊 分三道作賊設計云 賊魁順石招辭 亦有此言 似非尋常之賊. 故予以爲 刑曹則他公事甚多 不能專治此賊也. 昔者洪吉同[賊魁]之類 以禁府推之 已有前例 故今斟酌前例而爲之矣. ……監司之言曰 “此非常之賊也.”) <『중종실록』 권70, 25년 12월 甲申>

물론 위의 기록은 홍길동을 직접 다룬 기록은 아니다. ‘순석’이라는 대규

모 도적의 처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법을 몰라 홍길동의 전례를 참조하는 와중에 남은 기록이다. 하지만, ‘삼도로 나누어 노략질할 설계를 한 순석’을 다룸에 홍길동의 전례를 참조함은 홍길동 역시 삼도 혹은 이에 준하는 지역을 횡횡한 도적떼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로, 홍길동이 전국적 규모의 도적으로 묘사된 현전 『홍길동전』은 다소의 과장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근거를 갖춘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홍길동의 활동 규모와 세력화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경기도는 인가를 철거한 뒤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매우 많고,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적질한 뒤로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자들이 역시 회복되지 못하여 논밭의 추량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거두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京畿撤人家之後, 絶戶頗多, 忠淸道洪吉同作賊之後, 流亡亦未復, 而量田久廢, 收稅實難) <『중종실록』 권18, 8年 8月 甲子>

그 위에 버려진 성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 말로는 홍길동이 쌓은 것이라고 한다. (其上有一廢城, 諺傳土賊洪吉同所築.) <玉吾齋集 권13, 記, 遊麻谷寺記²⁵⁾>

옛날부터 西道에는 큰 도둑이 많았다. 그 중에 홍길동이란 자가 있었는데, 세대가 멀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시정 아이들의 맹세하는 말에까지 들어 있다. (自古西道多劇賊 有洪吉童世遠不知如何至今入市兒盟辭) <『星湖僊說』 권14, 人事門, 林居正>

위 인용 중 첫 번째 기사는 중종 8년의 일로, 홍길동이 체포된 후 10

25) 충청도 공주 무성산(茂城山)에 있는 사찰.

“마곡사는 무성산에 있다.(麻谷寺在茂城山)”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忠淸道, 公州牧>

여년이 흐른 뒤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홍길동이 저지른 일에 대한 상처는 아물지 않아서, 유민들이 회복되지 못했고 따라서 세균 또한 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玉吾齋 宋相琦(1657~1723)가 기록한 것이니, 홍길동 歿後 200년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비록 폐성이 되긴 했지만 2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정도의 흔적을 남겼던 정황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사는 홍길동이 ‘西道[황해도와 평안도]’에도 출몰했으며, 市井의 아이들이 맹세하는 말에까지 들어가는 이름이 되어 있었음을 알린다. 이는 홍길동의 무리가 당시 상당한 세력으로 횡횡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무도한 도적이었을까, 아니면, 현전 소설에서 나타나듯이 의로운 도적이었을까. 이 역시 우리는 관련 기록을 살펴으로써 추정해 볼 도리밖에 없다. 다행히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흥대 차림으로 침지라 칭하며 대낮에 무리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에 드나들면서 거리낌 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 이정, 유향소의 품관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거나 고발하지 않았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強盜洪吉同, 頂玉帶紅, 稱僉知, 白晝成群, 載持甲兵, 出入官府, 恣行無忌, 其勸農, 里正, 留鄉所品官, 豈不知之. 然不捕告 不可不懲) <『연산군일기』 권39, 6년 12월 己酉>

이는 홍길동 사건의 뒤처리를 위한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기사인데, 홍길동의 도적 행위를 권농·유향소의 품관 등이 묵인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지역의 하급 관리들이 홍길동의 도적행위를 묵인해 주었다는 것은 홍길동의 지지 세력이 실제적으로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홍길동이 백성들에게 전혀 외면만 받은 무도한 도적떼는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아무런 명분없이 관아를 습격

했거나, 이유없이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였다면, 이와 같은 목인, 혹은 勢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조실록이나 홍길동 관련기록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지만, 홍길동과 유사한 행적을 보였던 임꺽정의 사례는, 大盜의 주변에 언제든지 美化 모티프, 즉, 의적 모티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예를 보자.

① 강도 임꺽정은 양주의 백정이다.…… 경기와 황해도 일대의 아전과 백성들이 그와 비밀리에 결탁되어 있어, 관에서 조치하여 잡으려고 하면 항상 먼저 정보가 샀다. 이 때문에 거리낌 없이 횡행하였으나, 관에서 금할 수가 없었다. (強賊林巨正, 楊州白丁也. …… 自圻甸至海西, 一路吏民, 與之密結, 官欲措捕, 輒先漏通, 以此橫行無忌, 官不能禁.) <『寄齋雜記』3, 「歷朝舊聞」 3>

② 조정에서 선전관으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면, 도적들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녀,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간 것은 나간 것으로, 나간 것은 들어 온 것으로 보이게 하여, 종적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朝廷使宣傳官哨探, 賊倒着麻鞋. 使見者入則謂之出, 出則謂之入, 以亂其蹤跡.) <『寄齋雜記』3, 「歷朝舊聞」 3>

③ 종실 단천령 주경은 피리를 잘 불었다. 개성 청석령을 지나다가 적에게 붙잡혔다. …… 적은 단천령에게 저를 한 번 불게 하였는데 …… 곡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모두 탄식하면서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임꺽정이 …… “돌려 보내라.” 하고, 차고 있던 작은 칼을 풀어 주며, “길을 막는 자 있으면 이것을 보이라.” 하였다. (宗室端川令周卿善吹笛. 行到開城青石嶺被抱賊……令吹之……皆嘻戲嘆息至有涕泣者 ……巨正 ……“使送還” 仍解其所佩小刀與之曰道路有梗以此示之) <『연려실기술』 권11, 明宗朝故事本末, 抱強盜林巨正>

④ 해주 북쪽에 사발을 엮어놓은 듯한 산이 있는데 높이는 스무 길쯤 되어

보이고 그 위에 돈대가 있다. 옛날 큰 도적 임격정이 그 곳에 있으면서 자기 무리를 풀어 길 가는 나그네들을 털었는데, 나그네 중에서 붉은콩 20말을 들고 곧장 그 돈대까지 오를 수 있는 자는 자기 무리를 삼았고, 그렇게 못하는 자는 가진 것만 빼앗았다고 한다.(海州道北有山, 如覆鉢, 可二十丈, 上有墩. 昔劇賊林巨正據之, 縱其徒劫行旅, 旅人持赤豆二十斗, 直陟其墩者, 結爲黨, 不能者奪其財.)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2, 西海旅言 1>

위 인용의 ①번 기록은 임격정이 아전, 백성들과 내통한 도적이란 점에서 상례한 홍길동의 행적에 방불하는 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적을 보는 민중의 시각에 美化된 측면이 있음을 본다. 즉, ②, ③, ④의 기록들에서 임격정의 일당들이, 신출귀몰한 책략(②), 인간적 따스함(③), 나름의 약탈 원칙(④)을 지닌 도당으로 그리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유명한 도적은 언제든지 민중들에 의해 미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유사한 현상이 대도 홍길동에게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즉, 도적의 美談들이 ‘홍길동’의 이름과 더불어 허균의 시대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면, 허균이 이러한 인구에 회자되던 美化된 도적 행위를 입전했을 가능성이 있는가가 마지막 문제로 남게 된다. 이는 현재자료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가 봉건 체제 속의 한 인물일 뿐이라는 점, 당시 정쟁의 한가운데 휘몰린 위험인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문면에 드러내놓고 적지는 못했을 것이란 판단이 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티프는 현전 『홍길동전』 모두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민중이 기대하는 세상의 바뀔과도 호응하고, 그러한 점 때문에 19세기 중반에 영웅소설 『홍길동전』이 환골탈태로 생겨났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허균이 “허균이 수호전을 본떠서 홍길동전

을 지었다.(筠又作 洪吉同傳 以擬水滸)”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허균 작 『홍길동전』에 義賊 모티프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적 모티프야 말로 수호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티프는 허균작 『홍길동전』에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5) 율도국 모티프

‘율도국 모티프’는 새로운 이상 세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 모티프가 소설 『홍길동전』뿐만 아니라 허균의 『홍길동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도적의 우두머리가 새로운 세상에 가서 자신의 포부를 펼친다는 것은 홍길동 자신 혹은 허균 當代의 정신적 지향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조실록에 나타난 홍길동의 마지막 모습은 다음과 같다.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는 말을 들으니,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로움을 없애는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참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聞捕得強盜洪吉同, 不勝欣抃. 爲民除害, 莫大於此, 請於此時窮捕其黨.) <『연산군일기』 권39, 6년 10월 癸卯>

이것은 그간의 그의 활약에 비해 너무도 쓸쓸한 결말로서, 허균이 여타 전에 나타난 다음의 결말과 같이 허망함을 준다.

遺文은 흩어지고 잃어버려 모아놓지를 못했다. (遺文散失 不克集也) <업처사전>

지은 글들이 거의 다 없어질 지경인데 내가 가려서 4권으로 만들어 전해지게 하였다.(所著殆失盡, 不佞粹爲四卷以傳云.) <손곡산인전>

그렇다면 실록에 명시된 대로 홍길동은 ‘율도국 모티프’와는 관련없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다음에서 보이는 자료들은 허균작 『홍길동전』에 율도국 모티프가 포함되었을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호자국은 저팔계의 후손이고, 안남국은 홍길동의 후손이다. (胡子國猪八桂之孫也, 安南國 洪吉東之孫.) <睦台林, 『浮磬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p.95>

예전에 들으니, 조선조 중엽 이전에 洪吉童이란 자가 있었다 한다. 재상 逸童[홍일동은 장성 아차곡에 살았다.]의 서얼 동생으로, 제주와 기상을 자부하며 스스로 호탕했으나, (서자라서) 나라의 법에 걸려 벼슬길에 나갈 수 없게 되자, 하루 아침에 홀연히 도망가 버렸다. 훗날 명나라에서 온 사자가 있어 “바다 밖에 한 나라의 사신이 그 나라 왕의 표문을 가지고 북경에 왔으니, 왕의 성은 ‘恭’으로 ‘共’字 아래에 ‘水’字를 썼으니, 이는 무슨 글자인가?” 하니, 혹자는 吉童이 姓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길동이 홀연히 말 한필을 타고 逸童을 찾아 뵙고 壽宴을 축하하며 며칠을 머무르다가 장차 떠나려함에 울면서 말하였다. “이후로 다시는 못 오겠나이다.”하고 가버렸다. 대개 그 위 의와 용모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지는 않을 듯하였으니 필시 바다 밖으로 도망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일 것이다. 혹자는 말하길 “허균이 지은 傳은 믿기에 부족하다”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舊聞 國朝中葉以前 有洪吉童者 相臣 逸童 孽弟也[洪逸童 居長城亞次谷] 負才氣自豪, 而拘國典 不許科宦 淸顯一朝 忽逃去. 後有使者 歸自明朝言, “海外一國使臣, 以其王表文 賚至北京, 王姓恭 從共下水 此何字也? 或疑其爲吉童變姓. 吉童忽單騎 來謁逸童 上壽留數日 將行泣曰 “自此不復來矣” 乃去. 蓋其威儀容止 非復爲人下者. 必其逃海外自王. 或曰 “許筠所作傳 不足信” 何可信也.) <황운석, 『증보 海東異蹟』, 『海東書生』>

첫 자료는 장효현²⁶⁾이 학계에 처음 소개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저자

목태립(1782-1840)의 언급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글소설이 『홍길동전』이 나타나기 전에, 홍길동이 해외진출과 관련된 인물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 자료라 할 것이다. 이 인식은 어디서 비롯했을까? 소설이 나타나기 전의 언급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그 근원지는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자료는 앞서서도 한 번 보인 것인데, 역시 허균이 지은 傳 『홍길동전』에 해외 도피 모티프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허균은 무엇을 근거로 홍길동의 實傳에 이러한 화소를 포함시켰던 것일까? 이것은 그의 ‘述而不作’의 태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이 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선학의 예리한 지적을 하나 인용하려 한다. 이능우의 다음 언급이 그것이다.

辛巳 …… 然今被捕者六十餘人，則辭所連逮者，必倍於是. 若盡逮京獄，則繫縲連絡，大駭觀聽. 往在庚申，辛酉年間，洪吉同之獄，可爲鑑戒. …… 且速下書于本道監司處，牢守獄關，毋得逃逸可也.”<『중종실록』 권47, 18년 2월 辛巳>

위 引用文中 事件은 被捕된 賊黨이 60餘人인 바, 連逮者 合치면 그 倍나 될 것이다. 또 이들을 모두 京獄 한군데에 가두면 서로 連結들을 할 것이며, 或은 큰 놀랄 일이 發生할지도 모를 것이니, 아예 그들을 巨擘들에 分因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庚申·辛酉年間 洪吉同 獄事 때의 經驗에 依한 對策인 바라는 것이다.

이 意見들을 보면, 洪吉同이는 그때 獄中에서도 某種 連絡을 하였으며, 또 무슨 놀라운 일도 敢行했었던 것 같다. 특히 위 引用文中 王의 傳言에 賊들의 獄中 逃逸을 우려한 빛이 있으니, 想必 洪吉同이가 그러하였던 것도 같다.²⁷⁾

26) 장효현, 『홍길동전의 生成과 流傳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2001, p.361.

이능우가 주목한 것은 60인의 도적을 다루는 나라의 태도였다. 대규모 도둑을 다루면서 庚申 辛酉년간 홍길동을 다룰 때의 獄事를 거울삼아 조심하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逃逸을 우려한 빛이 있으니, 想必 洪吉同이가 그러하였던 것도 같다.”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대 연구자의 판단일 뿐이지만, 필자는 이 해석이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 본 탁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비록 이 통찰에 대한 완전한 증명은 불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홍길동과 그 일당들이 옥에 구금된 후에도 여전한 妙術을 부린 흔적이 있다는 점이다.

허균은 홍길동의 당대를 살지는 않은 인물이다. 그의 사후 人口에 膾炙되던 종적을 따라 입전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구금 후 妙術에 대한 후일담 -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후일담 - 이 당대의 거리에서 이와 같이 떠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포착해 입전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마치 여타의 전이 다음과 같이 맺어져 있듯이.

다음 해에야 비로소 그가 죽었음을 알았는데, 사람들은, 죽은 뒤에 신선이 된 사람이었다고 하였다.(明年 方知其死 人謂劍解也.) <장산인전>

얼마동안 머무시다가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떠나갔으니, 사람들은 그가 용담으로 다시 갔다고 하였다.(留數旬, 拂衣辭去, 人言其還向龍潭云.) <남궁선생전>

말을 끝마치자 날아서 가버리니 잠깐 사이에 있는 곳을 알 수 없더라.(言訖, 如飛而行, 須臾失所在.) <장생전>

27) 이능우, 「'홍길동傳'과 허균의 關係」, 『국어국문학』 42·43, 국어국문학회, 1969, pp.3-4.

5. 결론

이상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소설이 아니라 실존 인물 홍길동에 대한 ‘實傳’란 관점에서 ‘한글 소설에 나타난 몇 모티프가 허균 작 『홍길동전』에서도 존재했을까?’를 추론해 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허균 작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서자로 설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길동이라는 이름은 천민에게 어울리는 이름으로, 서얼의 이름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 황윤석의 『해동이적 보』에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서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었다.

2) 현전 홍길동전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 역시 원전 홍길동전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왕조실록에서 홍길동을 강상의 변을 저지른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었다.

3) 사찰탈취 모티프는 그간, 후대에 가첨된 부분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탈취의 정황이 현전 홍길동전과 실록 기사가 방불한 점이 있다는 점으로 허균작 홍길동전에도 이런 모티프가 있었을 것으로 잠정하였다.

4) 팔도를 횡횡한 의적 모티프 역시, 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볼 때, 허균 작 홍길동전에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세를 불러 국가의 골칫거리가 된 점은 일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더불어 大盜의 행적은 대체적으로 민중에 의해 美化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원작에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상향 모티프는 허균의 나머지 전 중 세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고, 황윤석의 『해동이적 보』에서도 나타나는데, 허균 작 홍길동전의 핵심 모티프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본고의 추정은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의

원모습을 감지하기 위한 하나의 試論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가설적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다소 모험적이고 성근 작업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이 가진 희미한 열개 - 신분적 차별 → 가족 살해와 기출 → 사찰 탈취·의적의 면모 → 울도국으로의 퇴장 -는 그려 볼 수 있지 않았나 한다. 더불어 현전 소설 『홍길동전』과 화소적으로 긴밀히 연관되는 측면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물음 -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적이 있는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전 소설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현전 소설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話素들은 결국 후대의 반영인바, 작품에 나타나는 개혁적인 사상들을 17세기 초의 사회에 투영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 에 답할 실마리가 잡힌 듯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균은 ‘소설’이 아니라 ‘전’으로서 홍길동전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현전 소설과 거리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화소로 볼 때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셋째, 소설 『홍길동전』의 주요 화소인 ‘신분차별·의적활동·해외진출사상’ 등은 허균의 원작 『홍길동전』에 대부분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17세기 초의 사회문제나 의식 지향점의 반영이라고 보아도 좋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潭庭叢書』, 『惺所覆瓿藁』, 『於于野談』, 『研經齋全集』, 『朝鮮王朝實錄』, 『芝峯類說』, 『澤堂先生別集』, 『海東異蹟』 등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 논문 및 단행본

高橋亨, 『朝鮮文學研究 - 朝鮮の小説』, 『日本文學講座』 12, 東京 新潮社, 1927.

김광순, 『‘홍길동전’의 作者是非에 대하여』, 『문화전통논집』 창간호,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3.

김진세, 『洪吉童傳의 作者攷』, 『논문집』 1,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인문·사회과학, 1969.

김태준, 『朝鮮小説史』, 學藝社, 1933.

박일용, 『‘홍길동전’의 文學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서대석, 『허균문학의 연구사적 비판』, 『許筠研究』, 새문사, 1992 (초판: 1981).

윤주필,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이능우, 『‘홍길동傳’과 허균의 關係』, 『국어국문학』 42·43, 국어국문학회, 1969.

이명선 『조선문학사』, 朝鮮文學社, 1948.

이문규, 『허균산문문학연구』, 삼지원, 1986.

이복규, 『‘홍길동전’ 作者 논의의 연구사적 검토』, 『서경대학교 논문집』 20, 1992.

이윤석, 『‘홍길동전’의 원본 확정을 위한 시론』,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_____, 『‘홍길동전’ 作者 논의의 계보』, 『열상고전연구』 36, 2012.

이창현, 『京板坊刻小説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1995.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창작과비평』 42, 1976, 겨울.

장효현, 『‘홍길동전’의 生成과 流傳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2001.

정규복, 『洪吉童傳 텍스트의 문제』, 『정신문화연구』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희웅, 「국문본 고전소설 형성연대 고구」, 『국민대학교논문집』 12, 1977.

차용주, 「許筠論再考」, 『亞細亞研究』 48호, 高麗大 亞細亞 問題研究所, 1972.

Abstract

On the Restoration of "Hong-gil-dong-jeon" by Heo Gyun

Park, Jae-Min

This paper examined one of the oldest arguments in the field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Hong-gil-dong-jeon* is the first Korean vernacular novel, which was written by Heo Gyun." Three different perceptions presently exist on this argument. Some affirm this argument thoroughly, whereas others contradict it completely. The third way of thinking is rather eclectic; it is regarding *Hong-gil-dong-jeon* as the novel which was written by Heo Gyun but was transformed from the original.

This paper assumed *Hong-gil-dong-jeon* by Heo Gyun as *jeon*, a Chinese narrative gen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title of *Hong-gil-dong-jeon* is similar to the other *jeon* pieces by Heo Gyun such as *Son-gok-san-in-jeon* and *Eom-Cheo-sa-jeon*, and the fact that these works are all based on real people and their historical facts. In this respect, this paper compared the motifs of *Hong-gil-dong-jeon* to the historical facts of Hong Gil-dong, a real person, and made a conclusion that the *Hong-gil-dong-jeon* by Heo Gyun would have contained the motifs as follows: 1. the child of a concubine motif, 2. the family killing motif, 3. the extortion from a temple motif, 4. the extortion from a government office motif. 5. the utopia motif.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could provide a balanced point of view between the two extreme opinions: "The existing *Hong-gil-dong-jeon* is the same as the original text by Heo Gyun" and "The existing *Hong-gil-dong-jeon* was created by an unknown writer in the 19th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lies in the fact that it verified the assumption many scholars have supported: "The existing *Hong-gil-dong-jeon* underwent transformation from the original text by Heo Gyun, but it was still deeply rooted in that original text."

Key Word : *Hong-gil-dong*, *Hong-gil-dong-jeon*, *Eom-cheo-sa-jeon*, Heo-gyun,
Yul-do-gook

박재민

소속 :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소 : (210-7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번호 : 010-6321-0565

전자우편 : bostonpark@gmail.com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